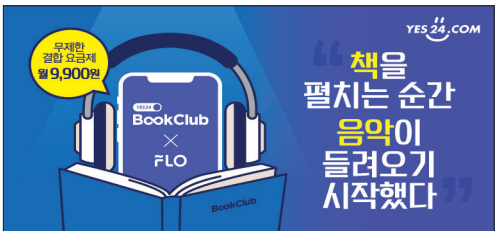


# 기독일보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음력 1월 19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746호

## “한국교회, 3·1운동 때처럼 하나 되자”

한국교회총연합, 3·1운동 제102주년 기념예배 드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지난 달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3·1운동 제102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기철 목사(기성 총회장)가 인도한 예배는 이철 감독(기감 감독회장)의 환영사,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기념사, 김윤석 목사(예성 총회장)의 기도, 홍정자 목사(예장 진리 총회장)의 성경봉독,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의 설교, 김홍철 목사(그리스도의교회합의회 총회장)·정인석 목사(대한예수교복음교회 총회장)·김명희 목사(예장 보수개혁 총회장)가 인도한 특별기도,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의 격려사, 인요한 박사(윌리엄 린튼 선교사 손)·신원철 청년(신석구 목사 고손)·노신국 권사(이필주 목사 외손)에게 감사패 증정, 박주옥 교수(백석예술대)의 31절 노래, 선언문 발표, 만세삼창, 최기학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철 감독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오늘, 한교총이 나라와 민족의 큰 평화와 조화를 기대하며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장종현 목사는 기념사에서 “3·1운동은 계층과 지역, 성별과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었다”며 “3·1운동은 안으로는 대한민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민족사적 운동이고, 세계사적으로는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모범”이라고 했다.

이어 “1919년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고, 교회는 3·1운동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였음에도 3·1운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목사는 “3·1운동에 한국교회가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완의 3·1운동, 한국교회가 이루자’(출 51·4)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소강석 목



“대한민국 만세” 한교총 3·1운동 제102주년 기념예배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한교총

사는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 우리 국민의 자주적 의식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애절한 계몽운동이었고 위대한 민주주의 운동이었다”며 “3·1운동의 이면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했다.

소 목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볼 때는 일제의 만행이 너무나 반민주적이고 반휴머니즘적이며 반근대적으로만 보였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신의 신앙양심과 소신을 갖고 미션스쿨과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박애, 인권,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며 “그런 의미에서 당시 기독교 미션스쿨과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인권운동의 산실이고, 원천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1운동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정신을 회복하여 인류공영,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교회와 학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가 무엇이고 인권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바로 이런 신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것”이라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천당에 가는 길이었으므로, 애국애민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초기 기독교 신앙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무엘 마펏 선교사와 모리 선교사는 아예 3·1운동 집회에 참여를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특별히 스코필드 선교사는 파고다공원에서 만세를 외친 사진을 비롯해서 제암리 사건 등을 직접 찍어서 외신기자회견까지 해서 전 세계에 알렸다”며 “만약에 스코필드

드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3·1운동은 역사의 뒤안길에 감추어진 사건으로 끝날 뻔했다. 그뿐인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소 목사는 특히 “그러나, 그렇게 위대했던 3·1운동도 아직은 미완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의 정신과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세우는 것이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해서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며 “그러므로 102년 전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어 갔다면 미완의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화합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어떤 한 정파에서 서서는 절대 안 된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초 갈등사회를 화해사회로 바꾸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분들이나,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함께 비난하며 적대시하는 것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우리 교회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화해하고 용서를 외친 사진을 비롯해서 제암리 사건 등을 직접 찍어서 외신기자회견까지 해서 전 세계에 알렸다”며 “만약에 스코필드

드 선교사가 아니었다면 3·1운동은 역사의 뒤안길에 감추어진 사건으로 끝날 뻔했다.

아울러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시대에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더 나아가 통일이라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격려사 한 이영훈 목사는 “당시 우리에게 독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열망은 있었지만, 정작 일제에서 독립을 이룰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나 버린 것 같은 삼일운동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며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가작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며 “남북통일을 위해, 국민대통합을 위해,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들이 소장 석장종현·이철 목사가 ‘3·1운동 102주년 한국교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생명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노동의 값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소망한다”며 “3·1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역사적 전통을 토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다.

## “위안부가 매춘부? 역사적 사실의 왜곡”

살롬나비, 논평 통해 램지어 교수 주장 비판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주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삼일절인 1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지난 2월 ‘전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Mark Ramseyer)에 대해 미 학계, 미 의원 및 미 한인단체 등의 비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위안부 사실을 부인하는 충격적 주장”이라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분명히 배치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성노예에 상태였다고 규정한 유엔과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운영에 관여했고,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 정부의 1993년 고노 담화와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 사항이다. 지난 1996년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이 등장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통용돼 왔다”고 했다.

또 “그의 주장은 아직 생존하는 위안부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들을 거짓증언자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에 배치되는 가공적(架空的) 주장이다. 우리 한국사회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본 정부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램지어의 주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들을 매춘부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간주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며 일본군국주의에 편승한 어용적 주장”이라며 “램지어 교수는 오랫동안 일본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온 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문제는 단순히 특정 학자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일본 정부

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될 때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또 다른 나라와 종종 비교하게 된다. 바로 ‘독일’이다. 독일과 일본 모두 전범국가지만 전쟁 이후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다”며 “독일의 반성은 경제적 보상으로도 이어진다. 1952년 독일-이스라엘 배상협상을 통해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입은 유대인 유가족 모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해 오고 있다. 독일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교육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일은 유럽에서 모범국가로서 오늘날 유럽연합을 지탱시키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존경받고 모범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청산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논문을 지원한 일본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 정부도 해외에서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외교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지연 대표 “청년 이어, 결혼하라” 》 2면

한국교회 선교사, 168국 2만2,259명 》 5면

목회자 초청 북한 교회 개척학교 서밋 》 7면

기독교미술가 이민영 “한 영혼이라도 더” 》 22면

## 서울 마지막 반값 아파트!

잡는 순간 역 소리나는 프리미엄 서울에 이런 가격은 없다!

3호선·6호선·GTX역 연신내역 트리플역세권! (신분당선 예정)  
북한산 청정 숲세권과 명문 학세권!



TRALIUM  
트라리움

59m² | 84m² 총 940세대(예정) 대단지

시행사: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시공사: 1군부랜드예정 | 자문관리사: 우리자산신탁 | 금융자문사: 신한금융투자 |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소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인화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랜드오픈

PRIMIUM

4인

골프장, 휘트니스 등  
고품격 커뮤니티

M

GTX-A(2023년 개통예정)  
역세권 프리미엄

버스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영

숟가락

맛별이 부부를 위한  
호텔급 조식

GTX 연신내역

트라리움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3종 (선착순 50명)

선물 하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증정

선물 둘

3,000만원 상당  
가전/가구  
출출선 무상제공

선물 셋

별코니 확장  
무상제공

상담문의

1811.0100